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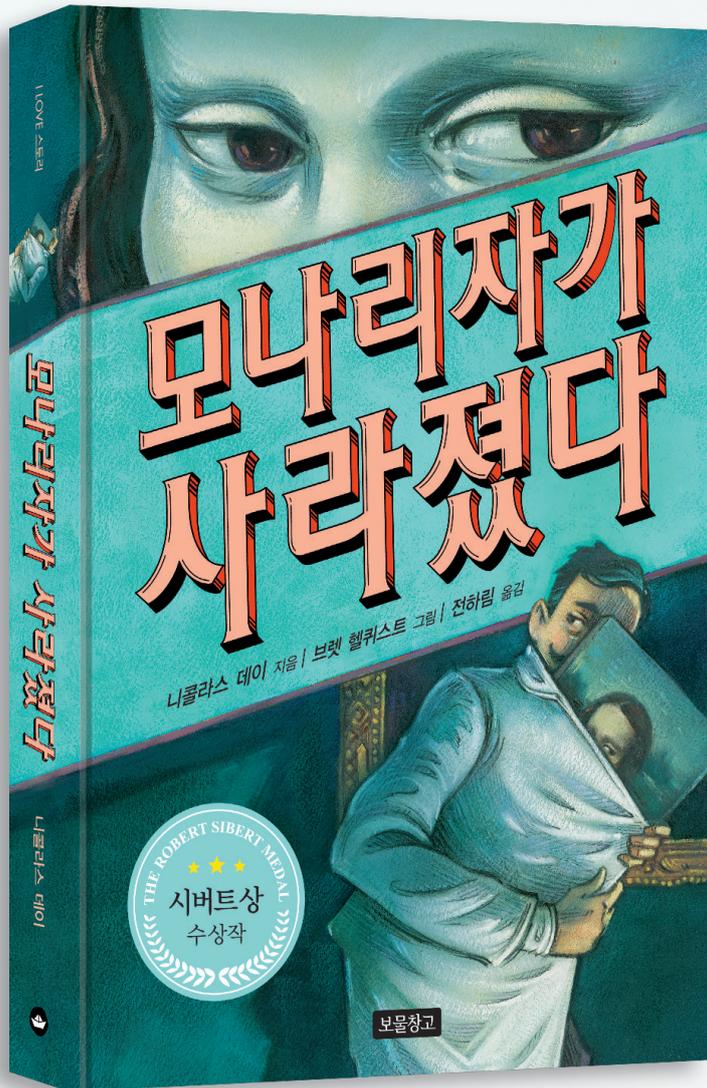
|어린이, 청소년

〈모나리자가 사라졌다〉

니콜라스 데이 글 | 브렛 헬퀴스트 그림 | 전하림 옮김 | 보물창고 펴냄

★〈시버트상〉 수상작

★〈보스턴 글로브 혼 북 상〉 수상작



『모나리자가 사라졌다』는 니콜라스 데이의 흥미로운 전개 방식과 브렛 헬퀴스트의 생동감 넘치는 그림이 만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표작 〈모나리자〉가 어떻게 지금의 명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알려 주는 논픽션 이야기책이다.

하루아침에 대스타가 된 〈모나리자〉의 그림 속 여인은 누구일까? 그 그림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떤 사람일까? 루브르 박물관은 왜 소장품들이 사라지는 것을 몰랐으며, 수사관들은 왜 눈앞의 범인을 찾지 못하고 헤맸을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인 〈모나리자〉의 중심에 있는 비밀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독자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고정관념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읽기 전 활동

1. <모나리자>를 어떻게 처음 알게 되었는지, <모나리자>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이 된 이유는 무엇일지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자.
2. <모나리자>가 도둑맞은 적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자.
3. 도둑은 어떤 방법으로 <모나리자>를 훔쳤을지 추측하고 이야기해 보자.

읽기 중 활동

1. 책 속에서 소개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직업들을 나열해 보자.
2.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지 않았던 다빈치가 왜 리사의 그림을 그릴 결심을 했는지 추측하고 이야기 나눠 보자.
3. 도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들이 범인이 출근 시간에 관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다. 종이에 그린 그림은 액자에서 꺼내면 돌돌 말아서 옮길 수 있지만, 나무판 위에 그린 그림은 그럴 수가 없었다. 나무 조각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원래 크기 그대로 남아있는 법이다. 그 문제를 해결할 표준한 방법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나쁜 해결책을 택했다.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연약한 그림을 보호 장치도 없이 앞에 쫓은 하얀 작업복 속에 집어넣은 것이다.

계단을 내려간 그는 맨 아래층에 도착해 문을 열고 문고리를 돌렸다. 그러나 아찔하. 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는 열쇠를 집어 넣고 다시 한 번 문을 열어 보았다. 그러나 열쇠는 움직이지 않았다.

갑자기 일이 계획에서 틀어지고 있었다.

남자는 드라이버로 문고리를 문에서 떼어 냈다. 그러나 문고리를 떼어 낸다고 잠긴 문이 열리는 것은 아니었다. 문은 여전히 굳게 잠겨 있었고, 또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틈도 없이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어쩌면 경비일지도 모르는 누군가가, 아니 경비일 확률이 높은 누군가가 계단 위에서 걸어 내려오고 있었다.

그는 꼼짝없이 멧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그림을 작업복 속에 영거주출 숨긴 채,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 땀한 눈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계단 맨 아래 모퉁이에서 안전부절못하고 있었다. 누가 보아도 수상해 보일 것이 틀림없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점점 더, 그것은...

경비원이 아니었다. 발자국 소리의 주인공은 해관공이었다. 워낙 규모가 큰 루브르에는 전속 해관공들이 상주하고 있었다.

해관공의 눈에 계단 아래에 서 있는 한 남자가 보였다. 그의 눈에 보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또,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 그가 식은땀을 흘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을까? 불안감을 눈치채지는 못했을까? 숨겨진 그림의 형태는 보이지 않았을까?

4. 범인이 <모나리자>를 훔친 이유는 무엇일까?

읽은 후 활동

1. 모나리자 도난 사건이 현대에 일어났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범인이 잡혔을까?
2.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스스로를 ‘글을 모르는 남자’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3. <모나리자>가 도난 당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명성을 얻을 수 있었을까?
4. 고정관념으로 여겨지는 세상의 통념을 찾아보고, 그러한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을지 이야기해 보자.
5. <모나리자>처럼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유명세를 얻은 것이 또 있는지 찾아보자.

커다란 진전을 이룩한 수사

《모나리자》 사건에 관련해 경찰서로 쏟아져 들어온 수천 건의 단서는 모두 그것될 정도로 밝혀졌다. 수사는 이렇다 할 진전 없이 제자리 걸음 상태에 머물렀다.

다행히 사진 발생 며칠 뒤, 루브르 박물관 안에서 알퐁스 베르티용과 루이 레편은 몇 가지 단서를 찾아냈다.

하나는 액자였다.

충격장에 버려졌던 《모나리자》의 액자를 기억하는가? 그 액자 앞에 붙은 유리판을 떠올려 보자. 맞은편 사람의 모습이 반사돼 보여 대중의 논란을 일으켰던 그 유리 말이다.

사람의 신체는 망점으로 덮여 있다. 사람 손의 1평방 인치(6.45cm²)에 만도 수천 개의 망점이 몰려 있다. 이 망점은 신체 온도를 낮추고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땀은 피부를 통과해 나가는 과정에서 누구의 몸을 통과하는지에 대한 정교한 기록을 남긴다.

8월 21일 월요일 아침, 파리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땀을 흘렸다. 《모나리자》 도둑이 액자를 충격장에 내려놓았을 때 그의 땀이 만들어 낸 무늬도 그 흔적을 남겼다.

동화 속 마법의 거울처럼, 그 유리에 마치막으로 손을 댄 사람의 모습도 그 유리판 위에 비쳤을 것이다. 또, 그 유리가 목격한 범죄를 풀어 갈 단서도 그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단단하고 깨끗러운 유리판은 지문이 남기에 완벽했고, 베르티용은 지문 채취에 능숙했다. 액자가 발견되자 그는 자신의 지문이 묻지 않게 손에 하얀 손수건을 쥐고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리고는 다른 한 손에 돋보기를 들고 액자와 유리 구조구의 전체를 천천히 그리고 꼼꼼히 살폈다.

돋보기가 유리판 왼쪽 중간 정도 되는 지점에서 멈추었다. 바로 거기였다. 떨어진 땀방울이 그 찰나의 흔적을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베르티용은 매우 섬세한 낙타털로 만든 솔을 쥘며 그 땀방울이 흘러내린 지점에 확장할 가루를 살살 뿌렸다. 그리고 손가락 지문의 계곡과 능선이 매우 선명하게 드러난 영구적인 기록을 확보했다. 그것은 엄지손가락의 지문으로 밝혀졌으며, 그와 동일한 지문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